

강제연행과 이송(하종문)

** PP는 파워포인트 화면을 지칭

1. 비극은 1931년부터 벌어지기 시작 (PP)

1931년 만주사변의 발발과 함께 군위안소가 나타나고 있고, 1937년의 중일전쟁을 계기로 위안소 설치의 전면적, 체계적인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빈발하는 일본군의 강간과 성병의 만연은 일본 정부와 군 수뇌부의 침략전쟁 수행에 중대한 장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으로 주둔지가 확대되면서, 막대한 숫자의 위안부가 아울러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위안부의 주요한 공급처는 다름 아닌 조선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강제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위안부가 되어야 했습니다.

2. 강제연행의 형태 (PP)

지금까지 채록된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위안부로 끌려가게 되는 경위를 정리해 보면, 강제연행의 형태는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기, 납치, 인신매매가 그것입니다. 전체 237명의 증언을 나누어 보면, 사기가 120명, 납치 84명, 인신매매가 11명이고, 기타 22명입니다. 사기와 납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기 중에서 많은 사례에는 거의 경찰이나 헌병이 등장하는 공권력을 병자한 폭력이 숨어 있습니다.

3. 내무성의 문서 (PP)

그러면, 이러한 강제연행의 흔적을 일본의 공문서를 통해 확인해 보기로 하죠.

피해자의 이름은 김복동입니다. 보시는 자료는 일본 본국의 내무성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광동의 21군이 내무성에 위안소 설치에 필요한 위안부를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문서에 명기된 날짜가 11월 4일이라는 것을 잠시 기억해 주십시오.

4. 21군과 광둥지역 (PP)

9월에 새로 편성된 제21군은 10월 21일 광둥을 점령하게 됩니다.

21군이 광둥을 점령한 것이 10월 21일인데, 본국의 내무성에는 11월 4일 위안소 설치 하겠다는 뜻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점령 며칠 후에, 아니 어쩌면 사전에 이미 위안소 설립에 착수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군 규모의 대부대가 작전을 수행할 때, 위안소는 이제 필수적인 '위안시설'로 자리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위안소가 일반화되면 당연히 국가기관의 체계적인 개입과 통제가 없이는 위안부의 원활한 수급은 불가능한 거죠.

5. 21군의 전시순보 (PP)

피해자 김복동이 연행되게 되는 광동의 위안소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위안소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21군의 공식 문서입니다.

6. 광동지역의 위안소 (PP)

광동 지역의 위안소가 어떤 상황이었나에 대한 구 일본군의 증언이 지금 여러분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간호부를 모집한다는 말에 속아서 위안소에 오게 된 조선인 위안부의 가련한 처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7. '위안 서비스'를 가다리는 병사들 (PP)

마찬가지로 위안소에서 한 컷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사진에서 위안부의 참상을 느낄 수 있으세요?

8. 피고인 (PP)

이 비극을 직접 책임져야 할 피고인은 다름 아닌 21군 사령관, 안도 리키치입니다.

9. 고카시는 어디 있나 (PP)

이어서 피해자 김군자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가 혼춘에서 트럭을 타고 지옥 같은 위안부 생활을 보내야 했던 고카시는 바로 여기입니다.

10. 관동군의 지휘명령계통 (PP)

고카시를 포함한 혼춘에 주둔하던 부대는 71사단이었습니다.

11. 관동군 사령부 건물 (PP)

그리고 71사단은 관동군의 예하 부대였습니다. 지옥 같은 위안소를 만든 관동군 사령부는 이렇게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2. 소련 국경지대 일본군 병사의 증언(PP)

하지만 죽은 조선인 위안부는 늑대의 먹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유해마저도 온전히 남기지 못했던 위안부의 처참한 현실.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13. 피고인 (PP)

우메즈 요시지로, 관동군 사령관!